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발돋움'

익산시, 공약 이행 '우수'

익산시, '2025 메가주 일산 케이펫 페어' 참가... 본격적 홍보 활동 돌입
향기 테라피·다도 체험 등... 익산형 반려동물 친화 치유여행 하반기 운영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서

익산시가 전국 반려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5 메가주 일산 케이펫페어'에 참가했다.

명품 도그나루 캠프는 오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웅포 공개나루 캠핑장과 익산 일원에서 진행된다. 1박 2일 동안 고구마빵 만들기과 금강 뚝배기 체험 등 이색 체험이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을 선사 예정으로, 참가 신청은 '팻츠고'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향기 테라피, 다도 체험 등 반려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반려동물 체류형 치유 관광 기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을 비롯한 전국 6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 현장에서는 멍멍이와 익산 관광 캐릭터 '바롱'의 이름을 합친 반려견 전용 캐릭터 '멍멍이'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와 손가라 펀치 게임 등이 운영돼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반려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익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치유여행을 통해 익산이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다다익명 익산'이란 사업명으로 '2025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5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한 성적표를 받으며 신뢰 행정을 입증했다.

특히 시는 민선7기 첫 공약평가에서 SA(최고)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2021년부터 2024까지 4년 연속 SA(최고)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도 A(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이행 역량을 보여줬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자료 등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4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분야 △일치도분야이며, 익산시는 평가항목 합산 총점이 83점을 넘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시

장 주재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마다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

아울러 매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부터 매년 점검 과정을 시 대표 누리집에 상세히 게시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정헌을 시장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올해도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까지 공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올해도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와 시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k-페스티벌서 퍼포먼스 부문 '대상' 수상

군산시는 지난 15~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K-Festival 2025 제11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군산 대표축제로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축제포럼 등이 후원하는 축제 전문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개 1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여러 유관기관 축제 관계자가 참여해 수도권 관광객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축제 및 관광지를 홍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부스운영 부문 최우수 상을 수상했던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이번 k-페스티벌에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민속적, 문화적, 전통을 소재로 한 축제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통해 전국 축제 정보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동인전람, 메가쇼가 주최

이번 박람회에서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는 물론, 같은 기간 개최 예정인 군산짬뽕페스티벌을 적극 알리고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k-관광 섬 등 군산의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식' 개최

공개모집·읍면동·비영리민간단체 추천 통해 총 51명 모집

군산시가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9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참여예산 시민위원은 총 51명으로 공개모집·읍면동·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되었다. 임기는 2027년 4월까지 2년간이다.

지난 16일 열렸던 위촉식에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선출이 이어졌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군산시 재정 현황 및 참여예산제에 관한 교육도 진행했다.

본격적으로 출발한 군산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총 4개 분과(행정안전, 경제문화, 복지환경, 해양농업)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나아가 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도 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 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헌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6월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와 분과위원회 운영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는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5년 7월 계약이 종료되는 2동 과채류 재배동과 4~5동 딸

기 재배동 총 3동에 대해 모집하는 것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간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으로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임차인은 2025년 8월부터 2028년 7월까지 3년간 임대농장에서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되며,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저수조 설치신고 의무화·기한 내 신고 당부

익산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현재 저수조를 운영 중인 기존 건축물은 오는 7월 16일까지 설치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상수도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상수도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상반기 정례회 개최

군산시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상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0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4월 26일 발대식 개최 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첫 활동으로서 상반기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상반기 정례회는 △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1부 아카데미 활동과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의회 체험을 하는 2부 본회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17일 열린 정례회의 △1부는 17일 열린 정례회의 △1부는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에서 아동의 건강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2부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교육·복지·안전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과 서기 호선 등 안건을 처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